(무)우체국연금보험 (일시납, 월납) 연금개시 나이 만45~70세	1) 저금리시대에도 고금리시대에도 고수익 : 실세금리를 반영한 신공시이율 Ⅲ 로 적립되며, 시중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최저 1.0%의 금리를 보장 (다만, 가입 후 10년 초과 시 0.5%)의 금리 보장 2) 다양한 목적의 재테크 기회로 활용 ○ 종신연금형 : 평생 동안 연금수령 통한 생활비 확보 가능하고 조기 사망 시에도 20년 또는 100세까지 안정적인 연금 수령 (종신연금형) ○ 상속연금형 및 확정기간연금형 : 연금개시 후에도 해지 가능하므로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활용 가능 (상속연금형, 확정기간연금형) ○ 더블연금형 : 연금개시 후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암, 뇌출혈, 급성심근 경색증, 장기요양상태(2등급 이내) 중 최초 진단 시 연금액 두 배로 증가 3) 세제혜택으로 세테크 기회를 함께 제공 :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4) 45세 이후부터 연금 지급 : 4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를 위한 가장 든든한 준비
(무)플러스연금보험 (일시납, 월납) 연금개시 나이 만55~70세	1) 든든한 노후를 위한 확실한 선택 : 평생토록 연금을 지급하여 장수할수록 유리한 상품으로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확실한 선택 2) 금리가 하락해도 약정보험금 지급 :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(가입 후 10년간은 1.0%, 그 이후는 0.5%)에 따른 약정보험금 지급 3) 플러스보험금을 추가로 받는 기쁨도 함께 : 실세금리 등을 반영한 신공시이율 Ⅲ 에 따라 추가 적립된 금액을 플러스적립금 또는 플러스연금으로 지급 4) 연금개시 전 보장도 높게 : 연금개시 전 사망 시 5,000만원(1구좌 기준)의 고액의 사망보험금 지급 5) 또 하나의 혜택 : 보험료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%이상 장해 시 보험료 납입 면제 6) 여건에 맞는 세테크 기회 :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
우체국연금저축보험 (유배당) 연금개시 나이 만55~80세	1) 저금리 시대에도 고금리 시대에도 고수익 : 실세금리 등을 반영한 신공시이율 Ⅲ 로 적립되며,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 1.0% (단, 가입 후 10년 초과 시 0.5%)의 금리 보장 2)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 : 고객 니즈에 맞는 연금지급형태 선택으로 종신(종신연금형) 또는 확정기간(확정기간연금형)동안 안정적인 연금지급 3) 세제혜택으로 세테크 기회 제공 : 관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 *(연간 납입보험료 400만원(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) 초과인 경우 300만원) 한도로 납입금액의 12% 또는 15% 혜택을 제공 4) 유배당 상품 : 배당상품으로 향후 운용이익금 발생 시 배당혜택 제공 ※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납입한도는 연간 총 월납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
[장애인] 어깨동무연금보험 (유배당) 연금개시 나이 20년, 100세 보증지급 20~80세 30년 보증지급 20~70세	1) 장애인전용연금보험 : 일반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, 장애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2) 저금리 시대에도 고금리 시대에도 고수익 : 실세금리 등을 반영한 신공시이율 Ⅲ 로 적립되며,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 1.0% (다만, 가입 후 10년 초과 시 0.5%)의 금리 보장 3) 보증지급기간 다양화 : 고객니즈에 맞는 보증지급기간(20년 보증지급, 30년 보증지급, 100세 보증지급) 선택 가능 4) 연금개시연령 확대 : 장애인 부모의 부양능력 약화 위험 및 장애아동을 고려, 20세부터 연금수급 가능 5) 유배당 상품 : 배당상품으로 향후 운용이익금 발생 시 배당혜택 제공 ※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(장애인)와 동일하며, 변경 불가